

2016년 6월 29일 [제2과]

에베소서 1장 3절 ~ 2장 10절

(1장 3절 - 14절) 신령한 복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5.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6.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7.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8.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10.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1.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12.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3.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시다.
14.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구절 해설]

(1장 7절) 구속: “아폴뤼트로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마시대에 노예를 댓가를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아래 얽매인 우리를 댓가를 지불하시고 사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댓가입니다.

(1장 9절) 하나님의 계획: 개역성경에는 “경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오니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오이코스(집) + 네메오(운영하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 “경제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피흘리심이 헛된 것이 안되게 하신다는 의미이지요. 2~3장에서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1장 13절) 성령의 날인: 고대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가축이나 종의 몸에 인을 찍었습니다. 혹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그 서류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하나님의 양자됨)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변하지 않는 진실된 약속임을 보증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 (1) (4절)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 (2) (5-6절)
- (3) (7절)
- (4) (9-10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1,14절).
- (5) (11절)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 (6) (14절)

2.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4절)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5절) 말씀과 나의 운명이 정해져있다고 생각하는 "운명론"과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지, 누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지를 운명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다.

3.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심 (4절)
- (2)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6, 12, 14절)
 -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신다.
 -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4. "그리스도 안" 이라는 말씀이 여러번 반복이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3절, 20절)

- (1)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 (2)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1장 15절 - 23절)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도

15.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16.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구절 해설]

(1장 17절) 알게 하시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알게 하신다”가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관계성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후자를 의미합니다.

5.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1) 감사 기도: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사함

(2) 중보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도록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6.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3가지를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 (18절)

(2) (18절)

(3) (19절)

7.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결국 교회로 연결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교회로 연결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 (1)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
- (2)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정세, 권세, 능력, 주권보다 뛰어나게 하심.
- (3)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 (4)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19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울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

(2장 1절 - 10절) 은혜로 인한 구원

1.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2. 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4.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절 해설]

(2장 1절) 허물과 죄: 원어적으로 “허물”이란 밭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죄”는 과녁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1. 구원을 받기 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

(1) 죄:

- 죄인(sinner) 이 죄(sins)를 짓는다
- sins: 죄의 결과들. “허물과 죄”는 이런 죄의 결과들을 의미한다.

(2) 죽음:

2.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삽니까? (2-3절)

(1)

(2)

(3)

3.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생각해 보세요.

(1) 구원을 받을 자격: (4-5절)

(2) 구원의 동기:

(3) 구원의 결과: (5-6절)

-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앉게 하셨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4) 구원의 방법: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By Grace Through Faith

4.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심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10절)

(미가서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